

보도 일시	2023. 2. 8.(수) 14:00	배포 일시	2023. 2. 8.(수) 14:00
담당 부서	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현수 (042-481-7340)
		담당자	사무관 국봉재 (042-481-7341)

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의 첫걸음을 떼다!

-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 개최 -

- 기상청(청장 유희동)은 ‘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’를 2월 8일(수)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.
 -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, 박대수 의원, 지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,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운전자에게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위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토론회에서는 △기상청 △한국도로공사 △티맵모빌리티(주) △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시험서비스,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 재난관리,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전달 및 도로 기상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를 발표했다.
 - 이어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위험 기상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등 기상청과 도로 관련 기관, 민간이 힘을 합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.
- 기상청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, 민간 협업*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도로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살얼음

발생 가능 정보**를 2월 10일(금)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한다.

* 기상청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한국도로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내비게이션 사업자(티맵모빌리티(주) 등)

** 도로기상관측망과 기상레이더 등 실황 기반의 기상관측자료를 융합하여 3단계 (**관심**, **주의**, **위험**)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생산

□ 유희동 기상청장은 “이제 첫걸음을 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정확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,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□ 붙임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 사진



| 모두발언 하는 유희동 기상청장 |



| 토론회 기념사진(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대수 의원,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유희동 기상청장) |